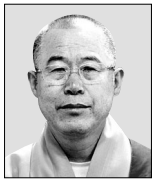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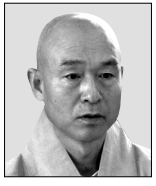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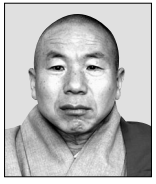
지도교사 신년하례
준광 천대종 총무원장 스님은 2월 14일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청년·학생·어린이회 지도교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성해당 추모다례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2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성해당 남거 스님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정초산림 특별기도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2월 10~16일 경내 법당에서 '천수다라니 1천독, 정초산림 7일 특별기도'를 봉행했다.



원영 스님 초청 복권서트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오후 1시 경내 북카페에서 '원영 스님과 함께하는 산사 복권서트'를 개최한다.



2016년 정기총회
송묵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스님은 2월 24일 오후 4시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현대수필문학상 수상
김대원 수필가는 2월 1일 저서 <면 산에 달이 오르네>로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제34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광진노인福, "만두로 행복 나눠요"

관내 48개 경로당서 설 행사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이하 광진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과 만두를 빚으며 설을 보냈다.

광진노인복지관은 2월 2~5일 관진구 내 경로당 48개소에서 설맞이 명절행사 '행복나눔 한마당'을 실시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재 관리 5년 계획 마련”

제주불교연합회장
탄해 성을 스님



전문 TF팀 구성 후 세미나 열어
각계 인사 의견 듣고, 계획 수립
영령천도법회·성보문화원 창립도

“2014년 9월 ‘도지정 동산문화재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발표돼 불상 보호누각에 대한 규모 및 보조금지원 등에 큰 제한이 생겼음에도 제주불교계는 한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모 사찰의 문화재수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문제가 불거지는 등 문화재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제주불교계의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제주불교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찰이 보유한 유·무형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장 탄해 성을 스님(사진)은 1월 말 열린 제주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신년계획을 밝혔다. 제주불교연합회는 ‘동산문화재 지침’ 발표 당시 반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개월동안 대응하지 못했다. 지침에 따르면 입면상 전면부 칸수 5칸을 초과할 수 없고, 좌불 및 입불상 최대 3×2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칸의 크기는 12자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문화재 보호

가람 규모를 약 23.5평 이상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해 초 문화재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며 관련 지침을 폐기하도록 이끌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탄해 스님은 도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제주불교 유·무형문화재 현황을 파악,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탄해 스님은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제주불교계 문화재와 관련된 현안을 정리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님은 제주 4·3사건 영령 천도법회와 ‘제주성보문화원’ 출범, 젊은 불자 포교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도 진력할 것을 밝혔다.

탄해 스님은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4·3사건이다. 이념의 극한 대립 속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원혼과 호국영령들의 화해를 위한 ‘수륙영령천도법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더불어 침체되고 있는 제주불교의 중흥을 위해 지난해 발기인 대회를 마친 ‘제주성보문화원’이 곧 창립할 예정”이라며 “제주불교 현안을 문화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제주의 젊은 불자들이 사찰로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제주불교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포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열린선원, 합동차례·세알세배

설 당일 대웅전서 불교차례의식

저장거리 수행전법도량인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연)은 2월 8일 대웅전에서 병신년 설맞이 합동차례 및 세알세배를 봉행했다.

이 행사는 1991년 선원장 법연 스님이 “차(茶)를 올려야 올 바른 명절 차례(茶禮)”라는 주장에 따라 실시해온 것이다. 행사에 동참한 대중은 먼저 불보살님께 헌공하고 이어 신중퇴공을 한 뒤 합동차례를 올렸다.

헌공은 결계를 위해 초기경전인 <장외경>과 전후송을 독송하고, 지장헌공 후 수행과 건강 등을 축원했다. 특히 법연 스님이 직접 재구성한 불교차례의식에 따라 차례음식을 올리고, 세알세배를 했다.

이후 대중은 법연 스님에게 세배를, 스님은 대중에게 덕담을 했다. 스님은 “새해에는 정진을 잘하고, 복을 많이 지어 공덕을 쌓으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법련사, 군부대 ‘방생’ 나선다

26일, 양주 26사단에 위문품 전달 예정

단순한 방생법회의 틀을 벗어나 군부대를 위문해 새로운 ‘방생’의 의미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2월 26일 경기도 양주 26사단에서 ‘군부대 위문 정초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법련사는 매년 정월 보름을 맞아 방생법회를 봉행해 왔는데 올해는 군부대를 방문, ‘인간방생’이라는 방생의 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날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을 비롯한 사내대중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26사단에 공양미와 품클렌징,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찰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계 방생은 각 사찰별로 이뤄져 ‘자비사상’을 강조해왔지만 물고기·거북이 등의 방생이 주를 이루면서 생명존중 사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찰에서 시작한 ‘꽃·나무 심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친환경적인 방생이 시도되기 시작, 법련사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생의 의미를 찾고자 이번 방생법회를 마련했다.

법련사 측은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찰음식전문가와 함께 사찰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장병은 물론 직업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불교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련사는 정초방생 삼사순례를 위해 군부대 법당을 비롯해 인근 사찰인 양주 지장사와 파주 보광사도 순례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홍법복지법인, 고양시에 쌀 전달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일환



(사)홍법문화복지법인(이사장 정우)은 2월 10일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 대법당에서 ‘정초 신중 7일 기도’ 입제 후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일환으로 자비나눔 쌀 10kg 200포대를 고양시에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강북노인福, 600명 떡국 무료제공

2월 4일 설맞이 특별행사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 이하 강북노인복지관)은 2월 4일 ‘한국아쿠르트 사랑의 떡국나눔기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 약 600명을 대상 무료점심 떡국을 제공했다.

한국아쿠르트 강북지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배식봉사 및 후식제공 등에 참여했다. 관장 소지 스님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본동福, 취약계층에 ‘설맞이 후원’

현대HCN 등 지역사회 기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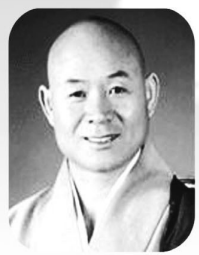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월 30일, 2월 2~3일 ‘따뜻한 설맞이 자비나눔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영대 사회복지행정학과 학생들, 현대HCN 동차방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 지역본부 등이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떡국떡·쌀·사골곰탕·과일·새해편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종성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실현코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